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어린이 제목: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성경: 에베소서 6장1-4절

-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6:1-4)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다.
 교육에 매우 긍정적이다. 교육의 가치를 아주 크게 여긴다.
 흔히 자녀를 가르치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을 악하고 무식한 자들로 평가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1. 교육을 높은 수익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교육의 이상화)
2. 그래서 교육을 투자로 여긴다. (즉 부모가 스스로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3. 자녀들과 양육을 위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보다는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교육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육을 위한 시간을 일에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은 나쁜 것인데, 일만하고 놀지 않는 것, 특히 일을 핑계로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4. 결국은 높은 수익은 교육을 위해서라는 딜렘마에 빠진다. 고양이 가 제 꼬리 물려고 힘빼는 꼴.
 -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대가 됨.
 -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자녀 학비 벌이용 일꾼으로 여기는 것을 거부함.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비를 1인당 2억으로 계산함.)

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가?

-성경에서의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그 주체가 된다. 즉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의 기술이나 직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특히 '사'자 돌림이 아닌 직업군에서)

-자녀들에게 비친 부모상이 왜곡되어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인식되기 보다는 야단치는 자, 감시자, 강요하는 자, 억지를 부리는 자, 고집이 강한 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려는 자로 인식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고, 희생정신도 높고, 실제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나, 교육적 효과는 낮고, 매우 교육적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1. 부모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서이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 된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함께 읽고, 교회에 성경공부를 일임하면 된다.
2. 양육보다는 교육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둘 다 소중하나, 양육이 더 필수적이고 베이스다. 양육의 기초위에 교육이 세워진다. 양육은 영적인 가치들을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사랑, 배려, 반성, 진리, 선, 순종, 질서, 예절, 말, 자신감, 성품 등.
3. 아이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끌어내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에 집중한다. 아이가 뒤처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 여쭙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이의 비전을 설계하라.
4. 아이가 pc에 빠져있다. 아이는 게임기보다 부모를 더 원한다. 부

모가 더 아이에게 만족을 준다. 다만 잔소리나 인격무시 등이 아이를 화나게 했을 뿐이다. 잔소리를 하지 말라거나, pc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함께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4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한말이나 훈계, 잔소리, 회초리, 가난, 불우한 환경(질병 같은) 등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인격적 모독, 무시, 성적 수치심을 비롯한 각종 수치심을 주어 아이를 괴롭히는 것, 거짓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 십계명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어린이들과 비교하는 것, 아이가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건방지게 구는 것을 방치하는 것, 부모가 죄를 짓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 주는 것 등이 아이를 노엽게 한다.

-그러나 답은 있는데 오직 주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 자신이 부족하면 교회와 협력하라.

-아이에게 양질의 과외를 시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아이가 크게 상처를 입거나 아이의 재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으면 어쩔까 염려하지 말라. 유사 이래로 이래본 적이 없다. 오늘날의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이나, 형편껏 최선을 다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잘 키워 주신다. 아이의 교육을 하나님께 의뢰하자. 그는 더 큰 지혜를 얻으며, 평안히 학

과 공부를 하며, 힘과 용기를 내며,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으며 밝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자라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시간에는 내가 양육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 또한 돌파되며, 형통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된다.

<찬양예배>

주제: 양육 제목: 양육자로 살기로 결단하기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14절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11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3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 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

14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딤후5:8-14)

-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그러나 내가 양육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 또한 돌파되며, 형통하게 된다.
-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꿈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도우며, 남의 꿈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꿈도 이룰 것이다.
- 남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양육의 기본 정신이다.
- 자신이 충분히 양육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양육하기로 결단하라. 당신이 아이에게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하찮은 다람쥐도 자기 새끼는 양육한다.
- 내 한 몸 처신하며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자기 살기

위해서 헤치고 나가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 주는 것은 오히려 더 수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내 앞길도 열리는 것이다.